

# 파주시, 3·1운동·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풍성'



임명에 지사 수행카드

파주시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최초의 만세시위 근원지였던 교하초등학교에 5천만원을 들여 독립운동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다. 기념비는 광복회 등 관계기관 자문을 거쳐 3·1절 기념식에 맞춰 시민에게 공개한다. 또 '파주의 류관순'으로 추앙받는 임명에 애국지사에 대한 창작 뮤지컬도 추진된다. 임 지사는 1886년 파주 교하동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당시 파주에서 학생들을 모아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뮤지컬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유관순 열사와 함께 수감돼



윤기섭선생

출산한 아기와 같이 옥살이한 임 지사의 인간적인 면모 등을 보여줄 계획이다.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인 규운 윤기섭 선생의 40여년 독립운동 역사를 되돌아보는 학술 심포지엄도 마련된다. 윤기섭 선생은 독립운동가 이시영, 이

동녕 등과 함께 한인 자치기관 '경학사'를 설립하고 산하에 신흥무관학교를 열어 10년간 학감과 교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 활동가를 양성했다. 선생은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납북돼 1959년 2월 27일 북한에서 서거했다. 정부는 1989년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순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얼을 후세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새 지평을 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